

13. 분재란?

분재(盆栽)라는 말은 두 개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첫 번째 한자인 ‘분(盆)’은 ‘쟁반’과 ‘접시’를 의미하고, 두 번째 한자인 ‘재(栽)’는 ‘나무’를 의미합니다. 이 둘을 합치면 ‘얹은 화분에 심어진 나무’라는 뜻이 됩니다.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분재가 가지는 일본의 정신 및 문화적 의의까지 충분히 전달되지는 않습니다.

사실 일본어의 ‘분재’라는 말은 생긴 지는 200 년 정도로 그리 오래된 말은 아닙니다. 하지만 고대 두루마리나 그림을 보면 이러한 예술 형식이 1300 년 정도 전의 중국 원에 문화에서 유래되었고, 일본에는 가마쿠라 시대(1185~1333 년)에 선불교와 함께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당시에는 ‘분산(盆山)’이라고 불렸는데, 여기서 ‘산’이라는 것은 미니어치 나무와 함께 사용된 산 모양을 한 돌을 말합니다. 이 돌을 조합해 디오라마 같은 풍경을 만들어 자연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과 존재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.

오늘날의 분재도 당시와 다르지 않습니다. 정성 들여 가꾸 자연을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형태로 만들어 살아있는 자연 속 식물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섬세한 미를 표현한 것이 분재이기 때문입니다.

초보자분들은 분재라고 하면 위로 뺨은 모양의 정해진 나무의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사실 분재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분재란, 예술적인 표현과 감상을 목적으로 나무를 매우 작은 크기로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수 세기에 걸쳐 갈고닦아 온 기교입니다.